



비혼(非婚)¹⁾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세상보기

심경미

1. 비혼자가 처해 있는 현주소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²⁾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들의 삶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교회에서 이들에게 무관심한 가장 큰 이유는 비혼자들이 언젠가는 결혼제도에 편입할 사람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혼자들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500-600만을 싱글 인구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더 이상 비혼자들을 잠정적으로 결혼이란 삶의 방식에 유입할 사람들이란 전제를 가지고 이들을 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³⁾

이러한 관점은 결혼만을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 상정하고, 실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비혼자들을 목회적 돌봄과 배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30대에 접어들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중심의 교회 문화와 의식 구조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소속감을 갖기가 어렵고, 공동체에 편입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30대나 40대의 비혼 남녀나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비가시적 존재로 살아간다. 따라서 점점 늘어가는 이들을 위한 목회적 배려와 돌봄,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주고,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 비혼에 대한 거부감 혹은 소홀히 여기는 이유

그렇다면 개신교는 왜 비혼의 삶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소홀히 다루는가? Stephen Vantassel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

첫째, 그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때문이라 한다. 마틴 루터가 결혼에 선택권이 없는 가톨릭교회의 독신 성직 제도를 공격한 이래 개신교에서는 결혼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이상적인 삶이라 간주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개신교에 녹아들었고, 이는 가톨릭교회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와는 또 다른 극단적 사고를 통해 개신교에서 결혼을 비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형성하였다.

둘째, 개신교에 녹아든 결혼 우위의 사고방식은 비혼 목회자가 결혼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에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비혼 목회자와 비혼자를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비혼자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과 바울은 가족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과 지혜로 효과적인 가르침을 수행하였다. 또 개신교와는 반대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독신 사제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한쪽에서는 비혼을, 다른 한쪽은 결혼의 삶의 방식을 선호한다. 이를 생각해 보면, 결혼이나 비혼, 그 어느 한쪽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오는 차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죄악적인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이라 분석한다. 이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 아울러 현대 사회처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결혼만을 성숙하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넷째, 현대사회에 팽배한 성적 쾌락에 대한 영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현대 대중 소비문화는 성을 상품화하고 우상화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육체적 성을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불행하고, 결핍된 삶이라는 견해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섯째, 그는 비혼 생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나 교회에서 과연 비혼 생활에 관해 과연 가르쳐야 하는지를 의문시하는 입장이 문제라 본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강의나 설교들은 있으나 비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혼에 대한 차별적 사고에 근거한다.

3. 비혼에 대한 관점과 공동체 구조의 변화 필요성

우리는 결혼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결혼중심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결혼중심의 사고방식은 비혼의 삶을 결혼을 위한 대기 상태로 본다. 아울러 기존에 비혼에 관한 글이나 행사들은 싱글 상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갈등적이고 탈피해야 하는 삶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는 비혼자들이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비혼에 관한 신학,’ 곧 비혼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학적 정립을 통해 비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혼자들이 공동체내에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둘째, 삶의 방식에 있어서, 비혼의 삶이 결혼의 삶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사이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결혼중심의 교회 공동체 구조와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는 결혼한 사람들만 속해 있는 곳이 아니다. 결혼 유무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성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자신을 창조하신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신다. 또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골 3: 10-11).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덧입고 새로워졌으면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은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살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공동체 구조의 변화를 통해 결혼한 사람들과 비혼자들 모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과 비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들

그렇다면 결혼과 비혼에 대해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결혼만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있어서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인용된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이브를 만드셨다고 언급한다. 이 이야기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고 정상적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갖게 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설정을 모든 남성과 여성의 삶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아담도, 이브도 아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처해있던 상황과 환경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그들과 동일한 필요를 느낀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세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홀로 있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견해는 일방적인 해석이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 새로운 인간을 대표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을 보고 외로워 보인다고, 예수님께 배우자를 만들어 주셔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 분 자체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 17) 라고 말씀하셨다. 바울 또한 어떠한가? 사람들이 바울이 혼자임으로 외롭다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는가? 아니면 바울이 혼자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다고 고백하였는가?. 오히려 바울은 혼자임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19:11-12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마19: 11-12). 예수께서는 유대 전통을 넘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독신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7:7절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

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음을 보게 된다.

교회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이 자발적으로 비혼 생활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서가 결혼이나 비혼에 대한 어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기혼자와 비혼자가 함께 하는 세상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서로 힘을 합하여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귀하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유 혹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혹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눌린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중심적 문화로 눌림을 받는 비혼자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돕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른 한편 사람들이 겪는 근본적인 외로움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발생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지 않아서 생긴 외로움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채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결혼한 크리스찬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유익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혼 크리스찬이 교회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유익에 주목해야 한다. 결혼한 크리스찬이 가족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주는 유익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결혼 중심으로 사고하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체제를 만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제한받을 수 있다. 반면 비혼 크리스찬은 결혼한 크리스찬이 제한받는 그 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에 매이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데 있어서도 가족을 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연성에서 뛰어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선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유익을 줄 수 있음을 각성하고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현재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는 첫째,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쓰인다. 둘째,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미혼, 이혼, 사별 여성 등이 ‘비혼’ 여성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셋째, 결혼을 전제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혼(未婚)’이란 의미에 대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수는 268만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엔 27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인 독신 가정은 전체 가구의 37%로 약 98만 명에 이른다. 1인 가구수로만 따지면 국내 싱글 수는 300만 명이 좀 안된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 남녀나 부모와 함께 사는 ‘돌아온 싱글’,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싱글 엄마, 싱글 아빠까지 합치면 전체 독신자 수는 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3) 조선일보와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2주간 30·40대 싱글 328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44%)과 돈(19%), 자아실현(14%)을 꼽았다. 가족(12%)과 결혼(7%)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남성 응답자의 11.7%와 여성 응답자의 33.1%는 “전혀 없거나 회의적인 편”이라고 답했다. ‘싱글’의 증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되는 현상이다. 미국 인구통계청이 발표한 싱글 숫자는 약 8600만 명. 노동인구의 42%, 주택 구입자의 40%, 유권자의 35%가 싱글이다. 프랑스는 성인 6명 중 1명이 싱글 이고, 노르웨이는 두 집 중 한 집 꼴이다. 영국 켈트대 리처드 스케이스 교수는 “2010년엔 영국의 싱글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www.chosun.com/national/news .2005.06.15) 인구조사 보고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 우리나라의 독신자가 10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성인 남녀의 의식조사 결과 여성의 70%, 남성의 38%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하기도 한다(조선일보 99. 11. 3). 결혼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남녀 응답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의 47%가 “자유롭고 싶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고 했고, 여자의 56%가 “독신은 이미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남자가 자기 위주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비해, 여자는 보다 신중하고 단호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www.lgad.co.kr/webzine
- 4) Stephen Vantassel, 2000, "독신, 망각해 버린 성령의 은사" 「목회와신학」, 2000년 5월호